

11 섬기린초

Sedum takesimense Nakai

돌나물과 Crassulaceae



물 주기
주 1~2회



햇빛 조건
완전한 햇빛



토양 조건
잘 배수된 흙
약간 산성 토양



독성
사람에게
유독함

국내 분포

- 울릉도·독도의 산지 햇빛이 잘 드는 암벽 바위틈에서 자람

수형

- 여러해살이풀로 키 100cm 내외로 자람

특징

- 잎은 주걱모양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6~7쌍의 둔한 톱니가 있으며, 광택이 있다. 꽃은 7월경에 노란색으로 핀다. 열매는 9~10월에 익는다.



초미세먼지(PM 2.5) 제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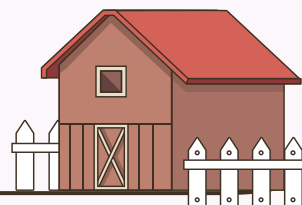


'23년도 실험 결과

- 스킨답서스 52%, 섬기린초 61%로, 섬기린초가 초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.

※ 실험 시기에 따라 다소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실내 관리



-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가꾼다. 실내에서는 식물생장등을 켜주면 생장에 도움이 된다.
- 물은 주 1~2회 간격으로 주되, 계절별로 횟수를 줄이거나 늘린다. 토양이 지나치게 습하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.
- 일교차가 크고, 환기가 잘 안되는 생육환경에서는 흰가루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. 발병시, 난황유나 가정용 흰가루병 방제약을 사용한다.

해충은 간혹 진딧물이 생길 수 있다. 진딧물이 발생하면 가정용 진딧물 방제약을 사용하거나 주방세제를 활용한 천연살충제로 방제한다.

증식



- 종자로 증식시, 빛이 없는 4°C 환경에서 지베렐린 200ppm 용액에 24시간 담근 후 낮 16시간, 밤 8시간의 25°C 환경에 파종하면 발아율이 높다.
- 영양생식은 주로 꺾꽂이를 실시하며, 새 가지의 생장이 멈추는 여름철에 가지 끝이 충실한 녹지를 채집한다. 채집한 가지는 2~3 마디 부분에 걸쳐 여러 개로 잘라준 후 윗부분에 잎 1~2장을 남기고 제거하여 꺾꽂이용 가지로 만든다. 이후 아랫부분의 잘린 면에 발근촉진제를 묻혀 멸균된 꺾꽂이용 용토에 꽂으면 수주 내 뿌리가 난다.

작성



책임운영기관
환경부
국립생물자원관